

2018년 6월 20일

emerics@kiep.go.kr

## 리비아 동·서부 정부,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대선 실시 합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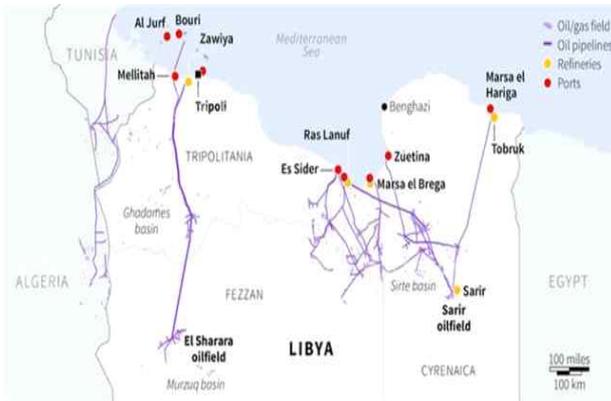


©REUTERS

- 지난 5월 29일(현지 시간) 리비아 서부 및 동부정부의 대표자들은 에마뉘엘 마크롱(Emmanuel Macron)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파리에 모여 오는 12월 10일에 리비아 통합정부 구성을 위한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함.
  - 이번 회담은 양측정부의 지도자인 파예즈 알-사라지(Fayez al-Sarraj) 서부정부 총리, 칼리파 하프트라르(Khalifa Haftar) 국민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, 회담 직후 양측은 대선 및 총선 실시를 통해 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발표함.
    - 리비아는 2014년 8월 제2차 리비아 내전 이후 서부 트리폴리(Tripoli) 정부와 동부 투부룩(Tubruq) 정부로 양분화되었으며, 현재까지 이 같은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.
  - 더불어 양측정부는 동선거의 실시를 위해 오는 9월 16일까지 헌법적 기초를 다지고 선거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함.
  - 이번 회담에는 서부 및 동부 정부 대표자 외에도 미국, 영국, 터키, UAE, 튀니지 등 총 20개국의 정계 인사들이 참석함.
- 첩예한 대립을 지속해 왔던 양측정부는 2016년 말부터 리비아 경제 재건에 공동 보조를 맞추는 양상을 보였으며, 이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자 통합정부 구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됨.
  - 서부 및 동부 정부는 2016년 말부터 △주요 석유 시설 재개, △OPEC 감산합의 면제, △IS (Islamic State) 소멸 등 경제적·안보적 현안과 관련해 동조하는 양상을 보였으며, 석유 생산량이 급증하는 등 이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.
    - 리비아는 내전 지속에 따른 주요 석유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일일 평균 31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나, 2016년 10월 주요 석유 수출항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(그림2 참고).

- 양측은 2016년 12월 IS(Islamic Sate)의 리비아내 마지막 점령지였던 시르테(Sirte)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동맹군으로 참전하여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였고, 2017년 5월에는 추가적인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정부 통합군을 창설함.
  - 석유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,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2017년 리비아는 70.8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.
- 양측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유엔리비아지원단(UNSMIL)의 주도 하에 대선 및 총선 실시를 위한 실무 논의를 이어왔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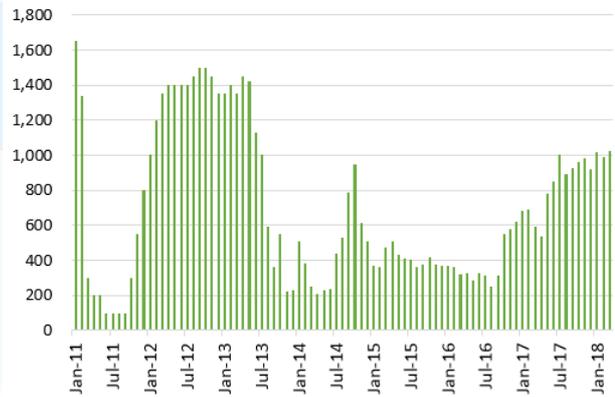
그림 1. 리비아의 주요 석유 시설



자료: 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.

그림 2.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추이

(단위: 천 b/d)



자료: U.S.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.

- 서로 반목해온 양측정부가 대선 및 총선 실시에 합의함에 따라 리비아는 정국 안정화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,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실제 선거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됨.
  - 대선 및 총선 실시를 통해 통합정부 구성이 가시화되면 우리 기업에게는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, 재건사업 수주 등 현지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.
    - 2014년 리비아에서는 국내 16개사가 총 36개의 중대형 프로젝트(총 105억 달러 규모)를 진행하고 있었으나, 치안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모두 철수했음.
    - IMF는 향후 리비아의 재건복구사업 규모가 약 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    - 2017년 9월 한국에 방문한 아흐메드 마이티크(Ahmed Maiteeq) 리비아 서부정부 부총리는 리비아에서 철수했던 국내 건설사들에 사업 재개를 요청하고, 여타 국내 기업들에게도 재건 복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음.
  - 그러나 △헌법제정위원회의 구성, △선거구 확정 등 여러 세부 쟁점에 관해 양측정부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만큼 동선거가 계획대로 진척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.
  - 아울러 통합정부 출범을 위해서는 주요 석유시설을 통제하고 있는 지방 군벌 세력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<sup>1</sup> **EMERiCs**

(작성: 유광호 연구원 /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)

1) 주요 석유시설을 통제하고 있는 서부의 13개 군벌 세력 연합은 리비아 사회의 열망에 따른 진정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, 이번 합의에 협력할 것을 거부함.